

# 국힘 전대 앞두고 다시 전면 나선 '친윤' 권성동·장제원

### 내년 2월말~3월초 개최 유력 의원모임 '국민공감' 출범식 참석 윤 대통령 관저 만남 이후 존재감 전당대회 국면 맞물려 행보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다시 여의도 정치 무대 전면에서 나서는 모습이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3월 초 열릴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당권경쟁에 불이 붙는 '정치 계절'이 돌아오면서다.

권·장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최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모임 '국민공감'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밀착 보좌한 뒤 정권 출범 후에도 친윤계 핵심으로 활약했다. 이후 권 의원은 잇단 실언 등으로 원내대표직을 포기 사퇴하면서, 장 의원은 대통령실 일부 비서진 교체 당시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각각 한 동안 몸을 낮추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최근 차기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지자 두 의원이 다시 확연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 이른바 '윤핵관 4인방'(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을 관저에 초청해 부부 동반 식사를 함께하면서 권·장 의원의 정치적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화물연대 파업,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등 여러 현안에 직설 화법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지역 곳곳을 돌며 당심(黨心)을 훑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은 국민공감 의원모임에 참석한 뒤 곧바로 대구 지역 당원들을 방문했다.

장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운영위 회의 진행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이어, '수도권·MZ세대 어필'로 요약되는 주 원내대표의 '차기 당 대표 조건' 발언을 작심 비판하면서 당내 현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민공감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당초 장 의원이 주도했던 '민들레' (민심들어올래)란 이름의 친윤의원 모임은 지난 6월 원내대표

였던 권 의원의 공개제동으로 무산됐다.

이는 '브라더'(형제)라고까지 불리며 끈끈함을 과시했던 두 의원이 소원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국 장 의원은 이날 출범한 국민공감에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당내 의원 115명 중 3분의 2에 가까운 70명가량이 참석한 것을 두고 해당 모임을 주도한 장 의원의 영향력을 입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향후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 권·장 의원의 행보에 더욱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4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잠재적 당권 주자로 꼽힌다. 아직 당권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권 의원이 친윤 후보로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다.

장 의원은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작지만, 친윤계 핵심인 만큼 장 의원이 물밑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권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날 출범한 국민공감 내 친윤계 여론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국민공감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순수한 공부모임"이라며 계파활동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인가'라는 질문에 "요즘 김장철인가? 경선물이 만들어지고 전대 일정이 나오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며 "후보 문제를 말씀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장 의원의 '관계 회복'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대에서 친윤계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유리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공감 행사장에서 장 의원과 웃으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뒤 "장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의기투합해 정권교체를 위해 힘써왔다. 저희 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민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분열은 자멸"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단합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흘렸다'는 질문에 "우리 당은 늘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일할 때"라고 답했다. '권 의원과 자주 연락하는가'라는 질문엔 "앞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 기념 첫 모임에서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늘 임시국무회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

### 철강·석유화학 분야 유력

### 추경호 장관점검회의서 윤곽

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논의 내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

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철강 분야 운송거부자에 우선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철강은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제 감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감산에 들어가면 다시 기존 생산량으로 올리기 전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유승민 "전당대회 출마 진지하게 검토 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전당대회 불이라도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제 결심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도전해서 당 대표가 돼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꼭 좀 이끌어 달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고민이 끝나면 출마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

힐 때가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전대 룰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현재 7:3에서 최대 9:1로 조정하려는 것에 대해선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승민 1명을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굉장한 샴류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얼마나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오늘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만찬

### 대통령실 "선수·코치진 타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과 8일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대표팀의 만찬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수들과 코치진에 일일이 문의 후 만찬을 신중하게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오찬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대표팀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아마 이르면 모레(8일) 오전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하고 입국 경로도 복잡해 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르면 8일

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성사는 선수들의 상태와 의견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해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정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뛰었다"며 "저도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물 컵 사용!**

**1.5리터 패트병!**

**절수형 변기!**

**욕조대신 샤워기 이용!**

**세제와 물은 정량 사용, 빨래는 모아서 한번에!**

**설거지통 이용!**

## 극한 가뭄,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뭄은 하늘의 뜻이지만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부족할수록 아끼고 나누는 생활속의 작은 실천으로 함께해주세요.

**K water**